

하나됨과 나눔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어린이사랑방 겨울 공동체생활이 28일(일)부터 29일(월)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교회에서 모입니다.
- 역할공동체 실행위원회 2023년도 4/4분기 정기회의가 오늘 모입니다. 각 위원회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모입니다.
- 공동체운영위원회 41차 정기회의가 다음 주일 오후에 모입니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임원(위원장)을 선출하므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이충환 · 최연우 집사 가정
(임준식 어머님 팔순과 최시원 생일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최시원 학생 (생일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4 호

2024년 1월 28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싼 프라폼

이번 어린이학교 졸업 여행은 태국과 홍콩, 마카오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으로 무사히 그리고 의미있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태국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나눠볼까 합니다.

태국은 인구의 95%가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입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의 관습과 전통이 녹아있는 좀 색다른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싼 프라폼”이었습니다. 이것은 건물마다 한쪽 모서리에 있는 또다른 건물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기둥으로 장식되어 있기도 하며 그 가운데는 인간 형상의 조형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태국의 길거리를 다른 대도시와 구분 짓게 해줄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싼 프라폼”은 하나같이 금색으로 번쩍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뽑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꽃장식과 음식들이 놓여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선 이곳에 놓을 수 있는 꽃장식들과 음식들을 파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방콕의 거리를 걸을 때 마주치는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곳에 모셔진 신들은 힌두교의 신, 조상신, 토지신 등을 형상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권에는 “신사[spirit house]”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태국인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향불을 피우고 기도를 합니다. 태국의 건물은 모두 있다고 할 정도로 매 건물마다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이나 구조물을 지을 때 그 땅에 있는 신을 화나지 않도록 가장 먼저 자리를 봐 집의 형태로 만든다고 합니다.

태국이 불교문화권이기에도 이것이 불당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해 이곳에 형상화 된 것은 정령, 혹은 그 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로서 그 존재를 달래서 화를 피하거나 그 힘을 빌어 유익함을 얻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흔히들 그렇게 하듯 힘을 가진 존재들을 떡과 밥, 각종 음식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 한 가지는 빨간색 환타에 빨대를 꽂아 올려져 있었습니다. 태국의 정령, 혹은 영적 존재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제물은 빨간 색 물[남땡]이며 그렇기에 빨간 색을 띄고 있는 딸기 맛 환타를 바치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태국 사람들은 저녁에 꽃과 음식을 준비하여 다음날 아침에 싡 프라폼에 바치며 그 집이나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운으로부터 보호해 주거나 행운을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 믿어지는 장소도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이어져 영원한 행복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며 붉은색 제물을 바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붉은 색의 장미꽃과 붉은 향, 붉은 초, 그리고 빨간색 환타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환타를 시켰는데 그림에 나와 있던 오렌지를 기대했지만 빨간색 환타가 나와 당황을 했었는데 태국인들이 얼마나 빨간색 환타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문화를 보며 문화사대주의에 빠져 태국 사람들이 참 오랜 전통에 묶여있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태국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이런 전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영적 존재들에게 음식과 귀한 것을 바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국 일정을 끝마치고 홍콩을 갔을 때, 각 식당과 매장마다 조그마한 사당들이 있었고 그곳에는 타고 남은 향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단연 가장 인기가 있어 보이는 것은 관우였는데 이런 문화는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일본의 신사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도 조상에 대한 예를 강조하며 이런 문화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이런 관점에서 돌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에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려 합니다. 하지만 쉽게 그 뜻을 잃어버리고 내 복을 받을 것과 화를 피할 것에 집중되진 않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점검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께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어떤 기도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단순히 복과 화를 주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친밀함으로 매번 만나는 것이 기대가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와 더욱 깊이 만나길 원하십니다. 단순히 잠깐 한주에 한번, 혹은 출근 전에 잠깐 복과 화를 처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과 더욱 깊이 관계하며 그 안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한주간의 말씀

“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
<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420, 435 / 468

기도 :

성경 : 잠언 24장

제목 : 믿는 자가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

1. 내용: 악한 것을 경계할 것을 충고합니다. (What)

<문단구분>

1~2절 <악한 사람을 부러워함을 경계>

3~7절 <지혜와 지식의 유익>

8~9절 <이간질, 오만한 자, 어리석은 사람을 경계>

10~14절 <지혜는 꿀처럼 달다>

15~18절 <악인과 의인>

19~20절 <행악자를 시기하지 말 것>

21~22절 <주님과 왕을 경외할 것>

2. 의미: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Why)

1) 악한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2) 무신경한 삶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3. 적용: 신앙의 원리대로 살아가자. (How)

1) 더디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법과 과정에 충실하자.

2)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자.

지천명(知天命)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하더니 벌써 내 나이 오십대 중반에 들어섰다. 지천명은 하늘의 명을 깨닫는 나이라는데 몸만 제대로 반응해서 오십견이 온 것 같다. 삼십대 후반에 사랑방에 왔으니 벌써 15년이 훌쩍 지났다. 멋도 모르고 아이들 어린이학교에 보내고, 겁 없이 그루터기에도 들어와 보고, 이곡리에도 몇 년 살았다. 그동안 교회가 별별 일 많이 겪었듯이 나 자신도 별별 일 겪으면서 지내온 나날이었다. 그루터기에서의 생활은 최전방 특공대 같은 느낌이었을까 누가 공동체를 말하면 공동생활을 해보지 않고는 내 앞에서 말하지 말라고 거드름을 피운다. (실제는 공동체 맛만 보고 나온 특공대 방위 출신.ㅋ)

직장에서도 순탄치만은 않은 생활이었다. 27년간의 교직 생활은 강산이 몇 번 바뀌는 기간 동안 가정의 생계를 지켜준 고마운 곳이었다. 물론 일로, 관계로 지치고 힘들어서 괴로움에 밤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했던가. 당시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나고 나니 모두 아름다운 추억인 것 같으니 이것이 곧 지천명이 아닌가 생각된다.

경상도 깡촌 영주 시골 촌놈이 맨몸으로 올라와서 가정을 이루고 서울 근교에서 이렇게나마 사는 것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고향 친구들도 가끔 만나면 촌놈이 출세했다고 우스갯소리를 한다. 사실 뭐가 뭔지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아직도 잘 모른다. 나이만 반백 살이 넘었을 뿐이지 철이 없다는 말이 아직도 나에게 맞는 말인 것 같다.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심하게 느껴진다. 이런 나를 두고 적절한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거저 주신 구원과 험한 세상 살아가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설명이 안 되는 삶이다.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은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모두 맡기자는 나의 다짐이다. 종종 자신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헛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와 닿는 것이 바로 지천명의 증거가 아닐까 생각된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편 95 : 1-3
10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3 : 23-24
482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누가복음 18 : 15-17
505

설교자
비움사랑방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십시오”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440
438(1)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정낙귀 정혜정 / 봉헌위원 : 정승희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하나님 나라의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서로 받아들이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십시오

어린이를 막은 제자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고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과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린이들을 쓰다듬어 주기를 바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기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신 예수님.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서 노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가까이 오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며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 아이들의 특성은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근본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수용’,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거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수용’하셨습니다. 수용의 전제는 ‘용서’입니다. 자신과 이웃을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삶을 누립니다.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이어람 집사

6학년의 졸업 인터뷰

Q 서로에게 서로는 어떤 존재인가요?

고온유 : 인간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정을 느낀 친구들이다. 실망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하지만 보고 싶은 감정을 느낀 존재다.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나영 : 애증의 관계이다.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너와 나이지만 결국 돌고돌아 사랑하는 우리이다.

박세은 : 밋기도 하지만 완전히 미워할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보면 볼수록 이해 안 가고 친구라고 할 수 있나 싶지만 나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함께 있기에 행복하고 함께 있기에 나를 찾아갈 수 있는 관계이다.

박인혁 :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고, 편하고 위로해주고 서로 기댈 수 있는 존재이다.

이현준 : 가족같이 편한 사이.

Q 멋쟁이학교에서 크게 얻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고온유 : 나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입학하기 전에는 소심하고 눈치도 많이 보는 성격이었는데 멋쟁이학교에 오고 그런 것들을 피드백하여 많은 사람들과 생활하다보니 꼭 잘해야한다는 강박증 같은 것이 없어지게 됐다.

이나영 : 아주 많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법도 배웠다. 6학년이 되고 나서는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됐다. 경쟁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것을 배우게 됐다.

박세은 : 올해 큰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학교가 나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함께 울어주고 화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관계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

박인혁 : 친구들, 다양한 경험들.

이현준 : 관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얻었다.

Q 멋쟁이학교는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고온유 : 나의 전부가 들어있는 곳이다. 이곳에 오래 있기도 했고 애정과 사랑, 나의 노력들이 다 있는 공간이다.

이나영 : 멋쟁이학교는 집이라고 생각하고 멋쟁이들은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박세은 : 나한테 멋쟁이학교는 설 수 있는 곳이다. 학교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며 지내면 유일하게 힘듦을 잊고 내가 나로서 있을 수 있는 쉼터같은 곳이다.

박인혁 : 나를 크게 성장시켜준 곳, 추억이 가득한 집 같은 곳이다.

이현준 : 제2의 집, 집만큼 편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서.

Q 앞으로의 꿈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고온유 : 성경구절 중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나 부모님, 환경 등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거저 받은 것이니 남에게도 내가 가진 것들을 주며 살아가고 싶다. 그러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면 돈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지향점이다.

이나영 :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고 싶다. 살아갈 때에도 내가 좋아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면서 눈에 생기가 돋는 삶을 살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삶을 지향한다.

박세은 : 유명한 소설작가 되기.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 같은 작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박인혁 : 미대에 진학하는 것이다. 해외에 나가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고, 디자이너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현준 :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원문과 더 많은 내용들은 멋쟁이 코이노니아 35호 '따뜻한 겨울'에 실려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언제는 답하기 쉽기도 하고, 언제는 답하기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랜 시간 같은 답이기도 했다가 바뀌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변하고, 살아가는 환경이 변하고, 주위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얼마 전까지 제가 생각한 답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이 던져져서 쉽게 답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고 하실 수 있을까? 부족한 나의 모습, 나의 죄가 생각나서 스스로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사람이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 수 있는가? 질문은 하나였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앙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역할들을 성실하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영성하기 짝이 없는 답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굶주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널려있으며, 파괴되고 있는 지구와,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몇 년간은 움직이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만 지내는 것이 소극적인 행동이라 생각해서 혼자 힘들어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세상에 모든 어려움을 다 짊어질 수 없다는 것과 나라는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에 충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인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나를 거기에 맞춰야 하는데 자꾸 자신이 앞으로 나와서 많이 삐걱거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람아 너는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칭찬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루터기사랑방 이어람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212장, 454장

성경 : 베드로전서 3장 8-17절

말씀 : 한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북한의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
강제복송 문제를 주목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상당수가 심문을 받아, 기독교 신앙의 유무와 교회 및 선교사 접촉 여부에 따라 정치범 수용소 수감에서부터 사형까지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새터마을 공동체>
 - 1) 모든 가정이 순조로이 잘 연합되게 하시며 흩어져 있는 새터마을 가족들이 각자의 삶을 잘 정리하여 하나됨을 이루어 가도록,
 - 2) 봄 농사와 새터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들 순조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 3)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가치를 신실하게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들이 다양하고 성실히 잘 준비되어 가길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 1) 추위와 눈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무림사랑방 박무상 집사님 남편 조영길 아버지 수술을 위해 기도
 - 2) 실행위원회 모임을 위해
 - 3) 어린이학교 졸업여행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잔뜩 긴장하며 보낸 한 주였습니다. 무림리의 강추위와 함께 멧쟁이학교의 봄 학기까지 겹치면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공동체 각처를 돌보았습니다.

봄 학기 학생들의 아침식사를 위해 새벽부터 주방에서 요리를 하시는 베다니하늘주방 분들과 수시로 동파를 염려하여 수도와 주변을 돌보시는 분들의 손길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귀한 봉사와 섬김으로 인해 마음은 훈훈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